

정책동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0.12.)

- [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10.11.] “농협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보완***
 - ※ 입법예고(5.20.) → 의견 수렴(6.29.까지 40일간) → 학계·농업인단체·국회 등 주관된 토론회 개최 절차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 중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들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안 보완
 - (주요 내용)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 보장하는 특례 신설, △축산경제대표 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마련 시 '1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 이상 미이용'으로 변경 등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0.13.)

- [농식품부,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관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0.13.]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 삭제,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등외' 표시***(유예기간 1년 부여)
 - ※ 2017.10.13.부터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
 - (기대 효과) '미검사' 삭제 통한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 촉진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방안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0.14.)

- [농식품부, 쌀 관련 유관기관과 「쌀 수급안정 방안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10.14.] ① 쌀 적정생산, ② 쌀 소비확대, ③ 쌀 재고처분, ④ 쌀 수출확대 등 **쌀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 해소 위한 분야별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과제 발굴**
 - (주요 내용) 정부, 쌀값 하락하더라도 ha당 237만 원의 쌀 직불금 정부 예산(고정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 반영)으로 **지급,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3,789원/80kg)보다 하락할 경우 추가 예산 반영** 추진

Vol. 42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10. 18.

■ 정책동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등

■ 해외단신

FAO와 미국 식품 가격 동향

■ 연구지원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 등

■ 현안분석

농작물재해보험 실태와 정책과제

식용곤충 안전 사육기준 마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0.10.)

- [농림축산식품부,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고시 제정·시행*, 10.7.] 2016.3.9. 곤충이 일반식품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사육을 위하여 시설 및 관리기준, 먹이기준, 출하관리 등의 기준 마련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2.11.개정) 제2항과 관련된 후속조치
- [주요 내용] 안전한 식용곤충 생산을 위한 사육시설 및 관리기준, 발효톱밥을 먹고 자라는 부식성(腐食性)곤충(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의 먹이기준, 식용곤충 출하시기에 대한 기준 설정
 - (중금속 노출 우려 해소) 부식성곤충(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의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을 사용하거나 페인트·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사용
 - (노폐물이 없는 상태의 깨끗하고 건강한 곤충들이 유통) 유충출하시기와 냉장저장 기간 설정, 출하 시 2일 이상 절식 의무화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6.10.1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0.11.]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개정 전) 승인받은 업체만 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식품원료로 사용 → (개정 후)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
- (기타 주요 내용)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
- (기대 효과)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산업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 ※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좋아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이 미래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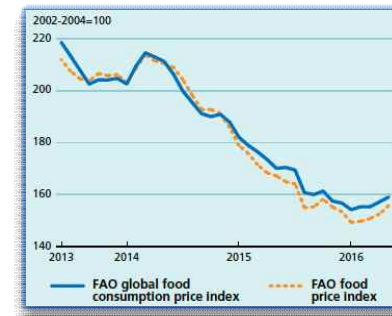
해외단신 FAO와 미국 식품 가격 동향

□ 미국, 최근 식품가격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 앞질러

- [대상국가] 미국
- [자료출처]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 2016.9.
- 2007~2015년 중 7개 연도에 미국 식품 가격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음. 2007~2008년에는 곡물과 유지작물(oilseeds)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효과가 일부 상쇄됨.
- 미국 식품 가격은 2014~2015년에 각각 2.4%, 1.9%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2015년 0.1%)을 웃돌았음.

□ FAO 국제 식품소비가격 지수, 상승세로 전환

- [대상국가] 세계
- [자료출처] FAO 식품 전망(Food Outlook) (2016.6, 매년 2회 발간)
- FAO 국제식품소비가격 지수(FAO Global Food Consumption Price Index)는 전 세계 식품구입 비용 변화를 측정함. FAO 식품가격지수(FAO Food Price Index)와 달리 주요 품목별 총 소비 열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 2016년 5월 FAO 국제식품소비가격 지수는 159포인트(2002~2004년 100포인트)였고, 최근 2년 내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함.
- FAO 국제식품소비가격 지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9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연구지원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6.10.07.)

□ 주요 내용

- [2016년 쌀 예상생산량] 4,202천 톤, 전년 대비 2.9% ↓
 ※ (2015) 4,327천 톤 → (2016) 4,202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015) 4,210천 톤 → (2016) 4,089
 - (감소 원인) 재배면적 감소(2.6% ↓), 10a당 생산량 감소(0.4% ↓)해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5천 톤 감소 예상
- [재배면적] 778,734ha, 전년 대비 2.6% ↓
 ※ (2015) 799,344ha → (2016) 778,734
- [10a당 예상생산량(현백률 92.9%)] 540kg, 전년 대비 0.4% ↓
 ※ (2015) 542kg → (2016) 540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015) 527kg → (2016) 525
 - (감소 원인) 10a당 생산량은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기상여건 호조로 낱알 수가 증가하였으나, 벼 낱알이 익는 시기의 후기 기상여건(일조시간 및 일교차 감소)이 좋지 않아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현황

구분	평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율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생산량(만 톤)	396	422	401	423	424	433	420	-2.9	6.1
10a당 생산량(kg)	508	496	473	508	520	542	540	-0.4	6.3
재배면적(천ha)	(779)	854	849	833	816	799	779	-2.6	-

※ 평년 10a당 생산량: 최근 5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연도의 평균
 ※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2013~2015) 기상호조로 10a당 생산량 증가율이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커 총생산량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이 커 총생산량은 감소세로 전환
- [시·도별 생산량] 전남(848천 톤) > 충남(779) > 전북(686) 순이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55.1% 차지

2016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6.10.07.)

□ 총괄

- [조사목적] 가축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 및 성별 마릿수 파악하여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전국 3,068개 표본조사구와 시도별·축종별 일정 규모이상 가축사육 농가
 ※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2016.9.1. / 2016.9.1.~15.
- [2016년 3/4분기 가축사육마릿수] 전년 동기대비 한·육우·돼지 증가, 젖소·산란계·육계·오리 감소

□ 2016년 3/4분기 축종별 현황(사육마릿수)

- [한·육우] 2,768천 마리, 전 분기 대비 1.0% ↑, 전년 동기대비 0.5% ↑
 - (원인) 2세 이상 마릿수 감소 등으로 한우는 감소하였으나, 육우 마릿수 증가
 ※ 한 육우 송아지 생산: ('13.9월) 174천 마리 → ('14.3월) 139 → (6월) 276 → (9월) 181
- [젖소] 407천 마리, 전 분기 대비 1.2% ↑, 전년 동기대비 2.5% ↓
 - (원인) 원유감산정책 시행에 따른 젖소 감축
 ※ 젖소 송아지 생산: ('15.9월) 40천 마리 → ('16.3월) 36 → (6월) 31 → (9월) 38
- [돼지] 10,669천 마리, 전 분기 대비 3.0% ↑, 전년 동기대비 3.3% ↑
 - (원인) 모든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
 ※ 생산 마릿수: ('15.9월) 5,051천 마리 → ('16.3월) 5,135 → (6월) 5,276 → (9월) 5,352
- [산란계] 69,853천 마리, 전 분기 대비 2.3% ↑, 전년 동기대비 3.1% ↓
 - (원인) 병아리 입식마릿수 감소
 ※ 산란계 6개월 미만 마릿수 ('15.9월) 1,860만 마리 → ('16.3월) 1,588 → (6월) 1,603 → (9월) 1,645
- [육계] 7,642만 마리, 전 분기 대비 24.3% ↓, 전년 동기대비 5.9% ↓
 - (원인) 중계 생산성 하락으로 병아리 생산 감소 및 폭염
 ※ 육계용 실용계 병아리생산: ('15.6~8월) 223백만 마리 → ('16.3~5월) 218 → ('16.6~8월) 195

연구지원

○ [오리] 877만 마리, 전 분기 대비 18.1%↓, 전년 동기대비 16.2%↓

- (원인) 종오리 감축 사업

※ 종오리입식실적 ('15.6~8월) 183천 마리 → ('16.3~5월) 168 → ('16.6~8월) 120

가축사육마릿수 총괄표

단위: 천 마리, 가구, %

구분	2014		2015			2016			증감	
	12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전 분기	전년 동기	
총 마릿수	3,190	3,166	3,170	3,088	3,004	3,144	3,175	31(1.0)	5(0.2)	
- 한육우	2,759	2,748	2,753	2,676	2,596	2,742	2,768	26(1.0)	15(0.5)	
· 한 우	2,670	2,653	2,646	2,561	2,478	2,619	2,640	21(0.8)	-7(-0.3)	
· 가임암소	1,123	1,148	1,136	1,099	1,073	1,130	1,128	-2(-0.1)	-8(-0.7)	
- 젖 소	431	418	418	411	409	402	407	5(1.2)	-10(-2.5)	
· 가임암소	305	298	298	293	292	288	292	4(1.3)	-5(-1.8)	
사육 가구수	109,530	104,176	102,036	99,858	98,078	97,134	96,421	-713(-0.7)	-5,615(-5.5)	
- 한육우	103,837	98,544	96,403	94,360	92,597	91,727	91,001	-726(-0.8)	-5,402(-5.6)	
· 한 우	99,285	94,025	91,659	89,403	87,573	87,089	86,203	-866(-1.0)	-5,456(-6.0)	
· 젖 소	5,693	5,632	5,633	5,498	5,481	5,407	5,420	13(0.2)	-213(-3.8)	
돼	10,090	10,018	10,332	10,187	10,315	10,355	10,669	314(3.0)	336(3.3)	
- 모돈	937	948	943	958	968	981	984	3(0.3)	41(4.4)	
지	5,177	4,966	4,973	4,909	4,761	4,666	4,622	-44(-0.9)	-351(-7.1)	
닭	156,410	190,182	164,844	164,131	167,228	180,704	156,489	-24,215(-13.4)	-8,355(-5.1)	
- 산란계	67,674	67,907	72,090	71,877	70,177	68,281	69,853	1,571(2.3)	-2,237(-3.1)	
- 육계	77,746	110,489	81,184	81,851	86,541	101,014	76,420	-24,594(-24.3)	-4,764(-5.9)	
- 종계	10,990	11,786	11,570	10,403	10,510	11,409	10,216	-1,192(-10.5)	-1,354(-11.7)	
사육 가구수	2,989	3,596	3,150	3,004	3,071	3,323	2,867	-456(-13.7)	-283(-9.0)	
오리	7,539	10,798	10,466	9,772	9,511	10,705	8,770	-1,935(-18.1)	-1,666(-16.2)	
- 종오리	804	830	912	960	757	751	764	13(1.7)	-148(-16.2)	
- 육용오리	6,735	9,968	9,555	8,811	8,755	9,954	8,006	-1,948(-19.6)	-1,549(-16.2)	
사육 가구수	605	772	771	722	685	733	639	-114(-15.1)	-132(-17.1)	

※ 가구당 사육마릿수: 한·육우 30.4마리, 젖소 75.1마리, 돼지 2,308마리, 닭 54,583마리, 오리 13,724마리

주요 용어 설명

- 한 우...우리나라 재래종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소로 털색에 따라 황소, 칠태소, 흑소로 구분
- 육 우...한우와 젖소 암컷을 제외한 모든 소(고기목적 젖소 암컷 포함)
- 젖 소...젖(우유)을 얻기 위하여 사육하는 소로 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 유용종의 암컷을 말함
- 산란계...계란(식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닭
- 육계...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토종닭 포함)
- 종오리...새끼오리 부화용 오리알(종란)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오리
- 육용오리...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연구지원

2016~2017년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2016.10.13.)

<국내경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 지속>

○ 2016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0.3%, △세계교역 성장률...2.3%, △원유도입 단가(기간 평균)...배럴당 41달러로 전제*

※ 2017년 각각 3.2%, 3.0%, 49달러 전제

○ [GDP 성장률] (2016) 2.7% → (2017) 2.8% 전망

※ 상반 3.0% → 하반 2.5%

○ [취업자수] (2016) 29만 명 내외 → (2017) 30만 명 내외 증가할 전망

- (실업률) 2016, 2017년 모두 3.8% 수준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6) 1.0% → (2017) 1.9% 보일 전망

-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2016) 1.6% → (2017) 1.8%

-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2016) 1.8% → (2017) 1.8%

○ [경상수지 흑자규모] (2016) 970억 달러 → (2017) 800억 달러 내외 기록할 전망

물가 전망

단위: 전년 동기대비, %

구분	2015 연간	2016		2017e)			
		상반	하반e)	상반	하반		
소비자물가	0.7	0.9	1.1	1.0	1.9	1.9	1.9
농산물·석유류 제외	2.2	1.7	1.4	1.6	1.7	1.9	1.8
식료품·에너지 제외	2.4	1.9	1.7	1.8	1.8	1.8	1.8

향후 성장경로의 상·하방리스크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 (상방리스크) ① 주요국 경기부양정책,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② 건설경기 호조 지속, ③ 교역탄성치 회복에 따른 세계교역 성장률 상승 등
- (하방리스크) ① 중국성장 둔화, 미국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 ②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 등

향후 물가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 (상방리스크) ① OPEC 산유국 간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②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 등
- (하방리스크) ①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확대 가능성, ② 중국성장 둔화, 미국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 등

연구지원

〈세계경제: 미국 등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미국]**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 이어갈 전망
 - 고용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가 상승에 힘입어 투자도 부진에서 다소 회복될 전망
 - ※ 한편 견조한 고용 상황, 브렉시트 충격 완화 등으로 최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강화
- **[유로지역]** **완만한 회복세 유지**할 전망
 -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 견인
 - ※ 다만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 영·EU간 교역 축소 등으로 내년 성장률은 금년보다 낮아질 전망
- **[일본]**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미약**할 전망
 - 엔화 강세 지속, 대신흥국 수출 부진 등으로 생산, 수출 및 설비투자의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 다만 재정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 견조한 내수흐름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할 전망
 - 수출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견조한 소매판매가 고정자산투자 둔화를 상쇄
 - ※ 다만 과도하게 높아진 기업부채, 과잉설비업종 구조조정 등의 위험요인이 잠재
- **[기타 신흥국]**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은 확장적 거시정책, 경제개혁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 유지**할 전망
 - 브라질 및 러시아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완만한 상승, 경제심리 회복 등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회복될 전망

현안분석

현안분석 농작물재해보험 실태와 정책과제

※ 「농작물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09.21.), 「늘어나는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 보험 이대로 둘 것인가?」(2016.09.24.) 및 기타 자료를 근거로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분석 및 시사점

- **[태풍 ‘차마’ 와 농작물 피해]** 제18호 태풍 ‘차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6년 10월 6일 기준 9,300ha**임(농림축산식품부).
 - **(피해면적)** 제주도(5,202ha) > 전남(1,831) > 경남(990) > 울산(563) > 경북(520) 순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징]**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때문에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영안정대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사후적 대책인 농업재해지원제도와 달리, **사전적·예방적 성격이 강함**.
 - **2015년까지 15만 7천 농가**에 보험금 1조 2,541억 원을 지급하였음.
- **[규모 확대]** 2001년 도입 이후 가입 **규모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품목)** (2001) 2개(사과, 배) → (2015) 46
 - **(예산)** (2001) 94억 원 → (2015) 2,853
- **[재해보험 개선과제: 가입률]**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1) 13.5% → (2015) 21.8% **까지 증가**하였으나, **지역별·품목별 편차가 커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배 90.4%, 사과 75.5% 가입 (2014년 기준)
 - 감귤, 포도, 고구마, 마늘, 봄감자, 느타리버섯은 1% 미만 (2015년 기준)
- **[재해보험 정책과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 보장비율 다양화, 손해평가 방식 개선, 보험통계 집적 및 확충, 여타 농가경영안정정책과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함.

㉔ 현안분석

□ 참고: 미국의 농작물보험 논의 동향

- [2014년 농업법과 농작물보험] 2014년 농업법(Farm Bill)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득안정정책(commodity program) 예산을 감축한 반면, 농작물보험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였음. 농작물보험을 경영안정 대책의 핵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임(Barnaby, 2016).
- [농작물보험 논쟁 지속] 2015년 11월 통과된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농작물재해 보험 민간 부문 기금을 30억 달러 감축하는 안을 검토함. 기금 감축은 취소되었으나, 농작물보험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됨.
- [2014년 농업법 전후 쟁점] 2014년 농업법을 살펴보면, 농작물보험 확대 과정에서 재해보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경영 안전망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 재정 한도, 안전망의 성격(소득지지 또는 경영안정), 적용 방식 비교, 보험 구조 개선 가능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었음(Zacharias and Collins, 2013).
- [향후 예상 쟁점] 농작물보험을 둘러싼 최근 쟁점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기능 강화, 정부 예산 제약, 환경·보전 정책 목표와의 관계 정립, WTO 규정과의 정합성(품목 특정 보험은 감축보조에 해당) 등임(Zacharias and Paggi, 2016).
 - 보다 정확한 보험 공급수요 추정, 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 개선 등이 필요함.
- [시사점] 오랜 기간 농작물보험을 운영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점을 여전히 겪고 있음.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 방안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미복,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방안. 농작물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6.9.21.
- 서상택, 농어업 재해보험 활성화 방안. 늘어나는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 보험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2016.9.24.
- Barnaby, G.A. 2016. "Theme Overview: Crop Insurance in the 2018/2019 Farm Bill." Choices. Quarter 3.
- Zacharias, T.P., and K.J. Collins. 2013. "Ten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Role of Crop Insurance in the Agricultural Safety Net". Choices. Quarter 3.
- Zacharias, T.P., and M.S. Paggi. 2013. "TCurrent Perspectives on the Crop Insurance Farm Safety Net". Choices. Quarter 3.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소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